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8호 [루게 제2696호]

주체 111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음력 3월 3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4월 25일 조국청사에 특기할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대련합부대 영광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방성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연설을 하시었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태어나 력사의 발걸음마다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기며 무적의 최정예강군, 혁명적당군으로 장성강화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장엄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명예기병종대가 광장에 들어섰다.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고 사상과 신념으로 승리하는 전통을 마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가 붉은기를 나뭇기며 행진해갔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숙》이라고 특별이던 강도 일제의 백만대군을 때려부신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전통을 이



어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미중유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포연이 스며인 군기에 새겨안고 조국해방전쟁시기종대가 위엄있게 나아갔다.

공화국무력의 혁명적성격과 민족만대의 사명을 뚜렷이 응변하며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를 지켜선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가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전선동부를 굳건히 지켜선 인민군대의 만아들군단, 백두산호랑이군단인 제1군단종대가 그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공포에 떠는 최정예사단들의 군기들을 자랑차게 나뭇기며 광장을 누벼나갔다.

바다의 결사대, 불침의 전함으로 불리우는 해군함대들과 하늘의 방패, 붉은 참대로 용맹떨치는 공군사단들의 군기들을 추켜든 해군종대와 공군종대가 혁명군기에 맞추어 영웅한 기계떨치며 진군해갔다.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미사일병들의 활기찬 용진에 이어 결전의 시각이 오면 지상과 해상, 공중

임의 작전공간에서 번개를 치고 우뢰를 치며 원수들의 머리우에 철추가 되어 쏟아져내릴 특수작전군종대가 광장으로 들어섰다.

성스러운 군기에 《4.25》의 글발을 정히 새기고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이어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며 발구름도 드높이 나아가는 대오속에는 최고사령부가 가리키는 작전지대들을 단숨에 깔고앉아 평정할 무쇠타격집단인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을 비롯한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도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계속혁명사상과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전당에서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가며 주체혁명의 기동감들로 역세계 준비해가는 혁명학원종대들이 열병행진곡에 맞춰 씩씩하고 박력있게 진전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전민항쟁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조국수호, 향토방위의 믿음직한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된 로동적위군종대.

사회주의조국의 고귀한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할 정예부대의 위용떨치는 국가보위성종대, 사회안전군의 녀성교동안전원종대, 군견수색대종대, 특별기동대종대와 비상방역종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도 전투적기상이 충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존엄한 혁명의 년대들에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숭고한 사명에 충실해온 고귀한 전통을 빛내이며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열병대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당중앙사수에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이 있고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이 있다는 철리를 증폭하며 열병대원들이 터치는 《만세!》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이어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조선인민군공군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에 운명의 피출기를 잇고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는 충성의 전위대오인 영웅적조선인민군

에 대한 신뢰심이 끝없이 분출되는 속에 기계화종대들이 장엄한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종대가 우람찬 철마의 평음으로 지축을 울리며 광장을 누벼나갔다.

당중앙이 발사명령만 내리면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고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릴 원수적멸의 의지를 강철포신마다에 비껴안고 인민군대의 제1병중, 세계최강의 병종인 우리의 미더운 포병무력이 나아갔다.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 임의 순간에 선제적인 련속타격으로 초토화할수 있는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종대가 위엄있게 진전했다.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능히 대응해줄수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수행능력을 과시하며 전략미사일종대들이 등장하였다.

지난 3월 24일 주체조선의 절대적협,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까이하는 온 광장이 삼시에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드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찬연한 불보라되어 터져올랐다.

대동강북관과 광장의 곳곳에서 천갈래, 만갈래로 솟구치는 각양각색의 축포들이 신비경의 극치를 이루며 뜻깊은 4월의 밤하늘을 아름다운 불꽃으로 수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드시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열병광장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한 우리 혁명, 위대한 장군님 따라 지켜온 우리의 사회주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역적의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만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로 가고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본사기자

